

오늘의 계시판

19일
해사
제46주년 4·19 혁명 기념식
제8회 대나무축제 최종보고회
제4회 광양항 국제 포럼

보센터'개소식=오전 10시30분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공연
김선철 피아노 작품 발표회
자선 음악회 '사랑 한걸음 희망 한걸음'

전시
광주시립미술관 미술단체 초대전 '남도 문인의 정신을 찾아서'
서양화가 박수만씨 창작지원전
최쌍중 서양화전

강요배 개인전=25일까지 남봉갤러리. 제주 민중항쟁사를 주제로 연작을 발표하고 제주와 자연을 서정적으로 표현해온 강요배씨가 '밤에 스민 시간'을 주제로 서양화 30점을 전시한다.

역사속의 오늘

음미개혁 단행(1895)
동양통신 창간(1952)
4·19 혁명 일어남(1960)
KAL, 태평양 횡단 첫 취항(1972)
김영삼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4·19묘소 참배, 성지화 지시(1993)

뉴스퀴즈

8. 최근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손상된 것으로 판명, 독일 월드컵 본선 출전이 좌절되면서 한국축구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이언 킹'으로 불리는 축구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최용수 ② 조재진
③ 이동국 ④ 이정환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지나주 정답
서늘곡, 고추, 못, 아이스크림, 상어, 펜촉, 종이비행기, 야구모자, 바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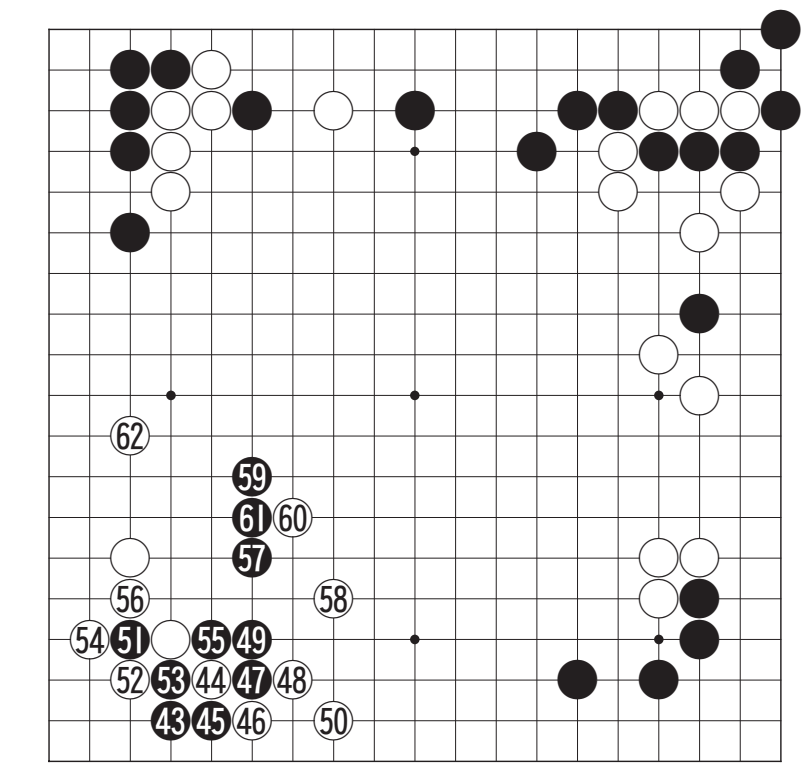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못, 바늘, 몽당연필, 음표, 국자, 펜촉, 종이비행기, 열대어, 갈매기

아들과 아빠의 공통점

엄마가 4살먹은 아들을 데리고 시내구경을 나섰습니다. 그날도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나가게 되었는데, 아들이 "엄마 쉬! 쉬!"라며 소변이 보고싶다고 보챘다.
엄마는 "종이컵을 대줄테니까 거기다 쉬어해"라고 말하며 종이컵을 대려고 하는 순간 아들은 엄마의 손에다 쉬를 했다. 화가 난 엄마는 아들을 쥐어 박으며 말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게 어떤 지 예비박 똑같은지 원-꼭 대주기도 전에 끝내버리다니!"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송현희·광주시 북구 신안동 서중숙·광주시 북구 운암동



이 9단의 선택 결승전 제 4보(43~62)
이창호 9단은 지난 14일 열린 2006 KB국민은행 한국 바둑리그 개막식에서 1라운드 1순위로 매일유업에 지명돼 인기를 과시했다.
▶참고도 1
▶참고도 2

바둑소식
허영호, 신인왕전 결승 선착
허영호 5단이 지난 1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6기 비제카드배 신인왕전 준결승전에서 진시영 2단계 14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선착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631>
Speaking 말씀하세요
A: Hello? I'd like to talk to Mr. Choi.
B: Speaking.
A: Oh, Mr. Choi. It's Molly.
Are you free tomorrow evening?
My wife's going to throw a party.
B: Hi, Molly. Yes, I'm free tomorrow.

오하이오 니혼고 <631>
まったく、'おっちょこちょい'なんだから
정말 덜렁쇠라니까
A: どうして待ち合(あ)わせの場所(ばしょ)、間違(まちが)えたのよ! 2時間(じかん)も待(ま)っちゃったじゃない。
B: ごめんごめん、電話で聞いたときは'新村(シンチョン)'って聞(き)えたんだけど、'市口(シチョン)'の間違(まちが)いだった。
A: まったく、'おっちょこちょい'なんだから。
B: いやあ、これからはきをつけるよ。ホントにすまない。

니하오 쑹구위 <378>
痞子
강패, 건달
A: 你的头发是花了。像一个小痞子。
B: 现在流行染发，我觉得很漂亮。
A: 现在流行染发，你觉得漂亮。
B: 染发是年轻人的事情，你这个年纪染什么。

한자 이야기 <248>
著作権 (저작권)
저술할 저, 지을 작, 권세 권
저작권(著作権)은 저술(著述)한 작품(作品)에 대한 권리(權利)이다.
저(著)는 초(卍) + 자(者: 음)로, 저(著: 짓기)의 속자이고, 뜻은 붙다, 드러나다, 저술하다이다. 작(作)은 사(作: 갑자기, 만들다)에 사람(人)을 첨부하여 인위적 행위를 나타낸다. 권(權)은 목(木) + 권(勳)으로, 원래 나무 이름이었으나 저술의 추를 뜻하게 되었고, 거기서 양쪽의 힘의 균형(均衡)을 잡는 힘·권세를 의미하게 되었다.